

스페인 3연패냐... 독일 명예회복이나 '유럽 축구전쟁'

(20년만에)



EURO 2016을 홍보하는 로고가 설치된 프랑스 남부 니스 메세나 분수광장에서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EURO 2016은 11일부터 한달여간 프랑스 10개 도시에서 열린다.

/프랑스=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로 2016' 11일 오전 4시 프랑스서 개막



'무적함대와 전차군단의 아성에 아트사커가 도전한다.'

4년마다 돌아오는 유럽축구 국가대항전의 '최고 무대'인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이하 유로2016)가 전 세계 축구팬들의 심장을 쫓아갈게 만들 준비를 마쳤다.

유로 2016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4시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개최국 프랑스와 루마니아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시작으로 7월 11일 프랑스 리옹의 파르크 올랭피크 리오네에서 열리는 결승전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유럽 축구 전쟁'이다.

1960년 4개 팀의 경쟁으로 막을 올린 유로 대회는 1980년 대회부터 본선 진출팀이 8개팀으로 늘었고, 1996년 대회를 기점으로 본선 진출팀이 16개 팀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대회부터 24개국 경쟁 체제로 바뀌었다.

유로 2016에서는 24개국이 4개 팀씩 6개 조(A~F조)로 나뉘어 각 조 1, 2위 팀

스페인·독, 조 1위팀 결승 격돌 예상 프랑스, 안방서 16년만에 우승 도전

과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4팀이 16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결정한다.

역대 대회에서 '전차군단' 독일(1972·1980·1996년)과 '무적함대' 스페인(1964·2008·2012년)이 나란히 세 차례씩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공동 최다 우승국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아트 사커' 프랑스(1998년·2000년)가 뒤를 잇고 있다. 소련(1960년), 이탈리아(1968년), 체코(1976년), 네덜란드(1988년), 덴마크(1992년), 그리스(2004년)도 한 차례씩 우승을 맛봤다.

유로 2016에 나서는 24개국 가운데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처음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역대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낸 나라는 단연 독일이다.

독일은 3차례 우승과 3차례 준우승(1976·1992·2008년)을 달성하며 역대 최다 결승 진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스페인인 4차례 결승에 올라 세 차례 우승과 한차례 준우승(1984년)을 차지했다. 스페인과 독일은 나란히 세 차례 우승을 맛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

독일의 마지막 우승은 무려 20년 전인

1996년 대회였지만 스페인은 2008년과 2012년 대회를 휩쓸며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했고, 유로 2016까지 우승하면 전무후무한 대회 3연패의 역사를 쓴다.

하지만 독일의 저력이 무섭다.

독일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했지만, 스페인은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1990년대 유럽 무대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다 스페인에 '맹주 자리'를 잠시 내준 독일은 2년 전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계기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스페인은 유로 2012 우승 이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하강 곡선에 접어든 추세다.

독일은 2012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의 상승세를 잇겠다는 각오고, 스페인은 역대 첫 3연패 달성의 역사를 쓰겠다는 목표만 바라본다. C조에 속한 독일과 D조 스페인은 각각 조 선두를 차지하면 결승에서나 만나게 된다. 하지만 조별리그 순위가 각각 1위와 2위로 엇갈리면 8강에서 격돌한다.

'다크호스'도 있다. 바로 개최국 프랑스다. 프랑스는 1984년 대회와 2000년 대회에서 우승했다.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16년 만에 따냈던 프랑스는 홈 무대에서 16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노리는 게 흥미롭다. /연합뉴스

■ 유로 2016 조별리그 편성표

조	국가
A	프랑스, 루마니아, 알바니아, 스위스
B	잉글랜드, 러시아, 웨일스, 슬로바키아
C	독일, 우크라이나, 폴란드, 북아일랜드
D	스페인, 체코, 터키, 크로아티아
E	벨기에,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F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팬 선정 유로 베스트 11

- 부폰(이탈리아)** 골키퍼
- 파올로 말디니(이탈리아)** 수비수
- 프란츠 베크엔바워(독일)** 수비수
- 카를레스 푸울(스페인)** 수비수
- 필리프 람(독일)** 수비수
-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스페인)** 미드필더
- 안드레아 피롤로(이탈리아)** 미드필더
- 지네딘 지단(프랑스)** 미드필더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공격수
- 티에리 앙리(프랑스)** 공격수
- 마르크 판 바스텐(네덜란드)** 공격수

못하지만, 역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려 자존심을 회복했다.

수비수로는 독일의 전설 프란츠 베크엔바워와 스페인의 레전드이자 현재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카를레스 푸울이 뽑혔다. 이탈리아의 말디니와 독일의 필리프 람도 선택을 받았다.

골키퍼로는 이탈리아의 베테랑 부폰이 장갑을 꼈다.

UEFA는 포지션별로 1960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 이상 유로대회에 참가한 50명의 후보를 선정해 팬투표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호날두·앙리·판 바스텐 '환상의 3톱'

팬 선정 '유로 베스트 11'

유럽축구연맹(UEFA)이 약 340만명의 팬 투표로 뽑힌 역대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유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UEFA가 8일(한국시간) 공개한 역대 베스트 11의 면면은 예상대로 매우 화려하다.

현재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군림하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와 프랑스를 1998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티에

리 앙리, 1980년대 네덜란드를 호령했던

마르크 판 바스텐이 공격수로 뽑혔다.

미드필드 부문에선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대거 뽑혔다.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미드필더 안드레아 피롤로, 프랑스의 아트 사커를 이끌었던 지네딘 지단이 선정됐다. 피롤로는 세대 교체 중인 이탈리아 대표팀에 부름을 받지 못해 유로 2016엔 참가하지

한국 여자배구 올림픽 첫 상대는 일본

8월 6일 오후 9시30분 A조 예선

40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첫 경기부터 속명의 라이벌 일본과 격돌한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7일(이하 한국시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배구 예선 일정을 발표했다. 한국은 8월 6일 오후 9시 30분에 일본과 A조 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리우올림픽 여자배구 첫 경기다.

FIVB는 일정을 공개하며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두고 다툰 한국과 일본이 리우올림픽 예선 1차전에서 맞붙는다"고 한·일전을 따로 언급했다. 한국은 4년 전 런던에서 일본과 3, 4위전을 치렀고 0-3으로 패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하지만 5월 17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세계 여자 예선에서 일본을 세트 스코어 3-1로 제압하며 설욕에 성공했다. 한국과 일본은 두 달 만에 다시 맞붙는다.

올림픽 조별 예선 초반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다. 한국은 9일 러시아, 11일 아르헨티나, 13일 브라질, 14일 카메룬과 차례대로 만난다.

총 12개국이 참가하는 리우올림픽 여자배구에서 한국은 A조 6개 팀 중 4위 안에 들면 8강에 진입한다. 8강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334억 번 세리나 '수입' 세계 1위

'253억' 샤라포바 11년만에 왕좌 내줘

여자테니스 세계랭킹 1위 세리나 윌리엄스(35·미국·사진)가 '수입'에서도 마리아 샤라포바(29·러시아)를 넘어섰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8일 '1년간 여자 스포츠 스타 수입 순위'를 공개했다.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연 수입 1위를 지키던 샤라포바가 2위로 내려갔다. 샤라포바를 밀어낸 여자 스포츠 스타는 윌리엄스였다.

포브스는 "윌리엄스는 최근 12개월 동안 총 2890만 달러(약 334억원)를 벌었다. 상금으로 890만 달러를 받았고, 광고 등으로 2000만 달러를 더 벌었다"고 전했다. 윌리엄스는 지난해 포브스가 발표한 순위에서는 2460만 달러로 여자 스포츠 스타 2위였다. 지난해보다 430만 달러를 더 벌어들였고, 샤라포바를 제쳤다.

포브스는 "샤라포바가 최근 12개월 동안 2190만 달러를 벌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입 2970만 달러에서 780만 달러가 줄어든 수치다. 포브스는 "샤라포바가 도핑 양성반응을 보인 뒤 광고 활



동 등에 제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격투기 룬다 로우지(미국)는 1400만 달러를 벌여 3위에 올랐고, 자동차 경주 드라이버 다니카 패트릭(미국)이 1390만 달러로 4위를 차지했다.

테니스의 강세는 여전했다. 10위 안에 든 선수 중 로우지와 패트릭을 제외한 8명이 테니스 선수다. 아그니에슈카 라드만스카(폴란드·1020만 달러), 캐롤라인 위즈니아키(덴마크·800만 달러), 가르비네 무구루사(스페인·760만 달러), 아나 이바노비치(세르비아·740만 달러), 빅토리아 아자렌카(벨라루스·660만 달러), 유지니 부사드(캐나다·620만 달러)가 5~10위에 올랐다. /연합뉴스